티타늄-살렌 촉매를 이용한 이산화탄소와 페놀로부터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직접합성

<u>강기혁</u>, 권기혁¹, 김동백¹, 이연주¹, 권오성¹, 송인규* 서울대학교; ¹삼성제일모직

(inksong@snu.ac.kr*)

디페닐카보네이트는 각종 화학 산업에서 카르보닐화제로 사용되고 있으며, 최근에는 폴리카 보네이트의 제조를 위한 주원료로 각광받고 있다. 이러한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제조를 위한 직접합성 공정은 유독한 반응물을 사용하던 기존 공정과는 달리 저렴하고 안정한 이산화탄소 를 활용하는 친환경 공정으로서 주목받고 있다. 상기 반응은 루이스 산 특성의 균일계 촉매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, 아직까지 이에 대한 촉매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티타늄-살렌 복합체에 다양한 치환기를 결합하여 본 반응에 적합한 촉 매를 탐색하고 1H-NMR 분석을 통해 제조된 촉매들의 분자 구조를 확인하였다. 또한, XPS 분석을 통해 상기 촉매들의 전자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치환기의 변화가 중심 금속의 루이스 산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(본 연구는 삼성제일모직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).